

Journal of Military History
2026, No. 140, pp.47-84
<https://doi.org/10.29212/mh.2026..140.47>
Printed in the Republic of Korea

기획 2

6·25전쟁 초기 북한군의 작전술과 전투수행에 대한 연구

장성진 | 국방부

- 목 차
1. 머리말
 2. 소련의 작전술과 전쟁 교훈
 3. 전쟁 국면별 북한군의 작전술과 전투수행
 4. 맺음말

초 록 본 논문의 목적은 6·25전쟁 초기 북한군의 작전술과 전투수행을 이해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소련의 작전술 이론과 소련의 전쟁경험과 교훈을 분석하고, 스탈린의 전쟁계획과 바실리에프의 전쟁수행계획을 살펴 보았다.

스탈린은 미군 개입 시 장기 소모전 우려와 항구적 작전요소의 작전지속 지원 문제 등으로 전쟁을 계속 반대하였지만, 중국의 한반도 행동 가능성을 고려하여 3단계 전쟁계획을 승인하였다. 당시 기습보다는 명분을 중시하였고, 중국 참전 하 장기 소모전을 구상하였으며, 소련의 직접 참전은 제한된다는 입장을 명확히 하였다.

바실리에프의 전쟁수행계획은 다정면 동시 압박 및 우회 기동 섬멸전을 통해 수원 북방에서 한국군 주력을 섬멸하는 1단계가 가장 중요하였으며, 2단계는 기계화 부대에 의한 중심 기동전, 3단계는 잔적소탕이었다. 당시 보급 및 병참의 지속지원문제는 간과되었다.

전쟁 1단계 전쟁 초기 결전 패배는 북한군의 작전적 미숙함과 지도부의 전쟁 패배에 대한 두려움과 혼란에 의한 산물이었다. 일부 사단의 전술적 미숙함과 실책에 의해 그 효과가 가중되었다. 서울에서의 작전적 정지는 공병 장비 준비, 휴식 등 작전적 준비의 필요성이나 인민봉기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미군의 신속한 참전에 따른 두려움과 혼란, 그리고 김일성의 작전적 미숙함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북한 지도부의 혼란은 스탈린의 명령에 의해 안정되었고 소련 고문단의 지원으로 작전술 체계를 정비하였다. 하지만, 제공권 상실로 중심 기동전 수행이 어려워졌고, 전쟁지속지원과 병력 보충의 한계로 작전 기세를 상실하였다. 스탈린의 공군력 투입 제한과 소련 군사고문단 역할 제한 등이 가장 큰 장애요소였다.

9월 공세 이전 8월 20일경 북한군은 작전한계점에 도달하였으나, 8월 28일 스탈린의 격려 서신으로 계속 공격하여 전환 시기 판단을 상실하였고, 서울 방어 집결 지시도 따르지 않아 북한군의 피해를 가중시켰다.

주제어: 6·25전쟁, 작전술, 전투수행방식, 단기 섬멸전, 장기 소모전, 중심 기동전, 소련 군사교리, 김일성

1. 머리말

소련은 작전술 개념을 정립하였으며, 미국도 1982년 이후 소련의 작전술 이론을 수용하였다.¹⁾ 스베친은 제1차 세계대전의 참호전 양상과 소련 적백내전의 기동전 양상에 대한 모순된 경험을 기반으로 전략적인 논쟁을 이끌었고, 전략과 전술의 중간 개념으로 작전술을 정의하였다.²⁾ 스베친이 장기 소모전 전략의 당위성을 입증하였다면, 미하일 투하첵스키는 전쟁수행의 기계화를 제시하였고 공세적 섬멸전을 주장하였다.³⁾ 스베친과 투하첵스키는 소련의 작전술을 발전시킨 원동력으로 ‘중심깊은 전투’, ‘중심깊은 작전’에 대한 소련의 작전적 사고를 지배하였다.⁴⁾ 북한도 6·25전쟁 이전에 스탈린, 소련 군사교문단, 그리고 무기체계 등을 통해 소련의 작전술을 수용하였다.

지금까지 북한의 작전술과 관련하여 북한군의 군사교리, 작전계획, 작전한계점, 작전지휘체계 등의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김광수는 전쟁준비, 전략결정, 전쟁수행과정에서 군사전략과 작전

- 1) 미군은 1982년까지 작전술 개념이 부재하였다. 1982년판 교범에서 작전술의 존재를 인정하였고, 1986년판 교범에는 작전술을 미군의 공식 개념으로 채택하였다. 데이비드 글랜즈, 유승현 역, 『8월의 폭풍』, 길찾기, 2018, 203쪽. ; 류한수, 「“8월의 폭풍”에서 “사막의 폭풍”으로: 냉전시기 미 육군의 소련군 작전술 이론의 연구와 수용과정」, 『군사』 105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7, 190쪽.
- 2) 러시아의 군사교리, 전쟁지도, 전략문화 등에 대해서는 로저 리스, 류한수 역, 『러시아 군대의 역사: 나폴레옹 전쟁에서 우크라이나 침공까지』, 너머북스, 2026. 특히 프룬제, 스베친, 트리안다필로프, 투하첵스키 등에 대해서는 제4장 참조.
- 3) 류제승, 『6·25, 아직 끝나지 않은 전쟁(북한, 소련, 중국의 전쟁 기획과 수행)』, 책세상, 2013, 90~92쪽.
- 4) 류제승, 앞의 책, 2013, 92~95쪽. 핵무기의 발전에도 ‘중심전투’ 이론은 소련 군대의 사고방식을 이끄는 지침으로 작용하였다. 로저 리스, 류한수 역, 앞의 책, 2026, 310쪽.

지도문제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⁵⁾ 그는 스탈린과 테렌티 슈티코프 그리고 북한지도부의 정책결정과정을 유기적으로 분석한 결과, 김일성과 박헌영은 미군 개입 가능성을 낮게 평가하고 인민봉기로 승리하고자 하였으며, 스탈린은 높은 기동성으로 기정사실화하고자 하였음을 주장하였다.

군사교리와 작전술에 대해서는 류제승, 장성진의 박사논문이 대표적이다.⁶⁾ 류제승은 소련 군사교리와 작전술의 특징, 북한의 소련 군사교리 수용, 그리고 전쟁단계별 작전수행의 특징을 분석하였다. 특히, 북한군 전투훈련과 침공 계획 작성 등에 대한 소련 군사고문단의 결정적 역할에 대해 강조하였고, 북한군의 조직, 무기체계, 교육훈련, 전쟁계획 등이 모두 소련군 교리의 산물이었음을 주장하였다.⁷⁾ 장성진은 북한군 군사교리의 역사적 배경과 형성과정, 군사교리와 훈련, 작전유형별 군사교리, 6·25전쟁 초기 단계별 적용된 군사교리와 전례를 분석하였으며, 북한군의 기동전과 섬멸전 교리를 강조하였다.

작전계획과 관련해서는 양영조, 김광수, 이정곤 등의 연구가 있다.⁸⁾ 양영조는 북한군의 기본전략은 3일 이내 서울 점령, 인민봉기에 의한 한국정부 전복, 속전속결(2주)에 의한 남한 전 지역 점령으로 8월 15일 이전 통일정부를 수립하는 것으로 보았다. 하지

5) 김광수, 「한국전쟁 전반기 북한의 전쟁수행 연구: 전략, 작전지휘 및 동맹관계」 경남대학교 북한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08.

6) 류제승, 앞의 책, 2013 ; 장성진, 「북한군 군사교리의 형성과 운용에 관한 연구, 1945~1950」, 북한대학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4.

7) 소련군 작전술의 특징은 섬멸전, 기습달성, 기동전, 예비 전투력 편성과 운용, 후방지역의 조직, 빨치산 투쟁전술 등이다. 류제승, 앞의 책, 2013, 100~111쪽.

8) 양영조, 『남북한 군사정책과 한국전쟁 1945~1950』, 한국학술정보(주), 2007, 232~234쪽 ; 김광수, 「한국전쟁 개전 당시 북한군의 작전계획과 웅진전투」 『군사』 41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0 ; 이정곤, 「6·25전쟁 전 북한군 전쟁계획 분석- 국가안보전략과 군사예술을 중심으로」, 『군사연구』 145집, 육군군사연구소, 2018.

만, 인민봉기가 일어나지 않고, 국군의 저항과 미 증원군의 전개로 인하여 패배하였다고 분석하였다. 김광수는 3단계 전쟁수행계획과 라주바예프 보고서에 나타난 4단계 전쟁수행계획, 그리고 웅진전투를 분석하였다. 이정곤은 북한군의 전략-작전술-전술 체계의 측면에서 전쟁계획을 분석하였다. 국가안보전략 측면에서 2~3배 우위의 군사력 건설, 미군참전 대비 중국과의 사전 협조, 전략 측면에서 섬멸전과 기동전, 군사지휘체계에 의한 ‘작전조’ 개념의 적용, 작전술과 전술 측면에서는 주타격, 보조타격, 퇴로 및 증원차단 등에 의한 작전계획수립을 설명하였다.

전략-작전술-전술의 측면에서는 김태현, 정상혁 등의 연구가 있다.⁹⁾ 김태현은 박사학위논문 등을 통해 김일성의 군사적 모험주의에 의한 전쟁계획과 경직된 전쟁수행으로 전략이 전술화되었음을 논리적으로 분석하였다. 정상혁은 북한군의 한강도하작전에 대해 한강교량의 미확보, 도하장비 부족 등의 전략적, 작전술적 원인뿐만 아니라 전술적 측면에서 도하작전의 실패요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전쟁지휘체계 관련하여 전선사령부, 군단 편성 등에 대해 장준익, 박현옥 등의 초기 연구가 진행되었고,¹⁰⁾ 고재홍, 윤경섭 등은 전쟁지도체계와 최고사령관 제도의 의미와 특징을 분석하였다.¹¹⁾

9) 김태현, 「김일성의 6·25전쟁 전략 분석-전략의 전술화」, 『군사』 105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7; 정상혁, 「6·25전쟁 초기 북한군의 도하작전의 실패요인 연구-한강 도하 사례를 중심으로」, 『군사』 110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9.

10) 대표적으로 장준익과 박현옥 등은 유성철의 증언 등을 바탕으로 전선사령부와 군단 사전 편성을 주장하였지만, 북한 및 소련 문헌에서는 7월 5일 전후 편성으로 기록되어 있다. 장준익, 『북한인민군대사』 서문당, 1991, 231쪽; 박현옥, 「6·25전쟁에서 김일성의 역할과 북한군의 전쟁수행」, 『군사』 63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7, 76쪽; 사회과학원 역사연구소, 『조선전사』 제25권,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81, 261쪽; 육군군사연구소, 『소련이 기술한 6·25전쟁』 국군인쇄창, 2019, 59쪽.

11) 고재홍, 「한국전쟁 초기 북한군의 전쟁지도체계 연구」, 『현대북한연구』 8권2호, 북한대학원대학교, 2005; 윤경섭, 「한국전쟁기 북한군 ‘인민군최고사령관’ 제도

최근 김선호에 의해 북한의 전쟁지휘체계가 종합적으로 정리되는 연구 성과가 이루어졌다.¹²⁾

작전한계점과 관련하여 석영준, 최원정 등의 연구가 있다.¹³⁾ 석영준은 작전술에서 작전한계점이 중요하며, 전투력 손실의 최소화, 작전지속능력의 유지, 공군력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최원정은 작전한계점 판단요인으로 정치적 요인, 작전지속지원능력, 전투력 손실, 예비대 보유, 지형 및 기상, C4I체계를 종합적으로 제시하였다.

선행연구 검토결과, 소련 작전술과 군사교리의 특징이 북한군 작전술과 군사교리, 그리고 작전계획 수립에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작전술과 관련된 작전계획, 지휘체계, 작전한계점 등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가 요구된다. 즉, 북한군이 소련의 작전술을 어떻게 수용하였으며, 전쟁 단계별로 나타난 작전술과 전투수행의 특징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미흡한 편이다. 따라서 본 논문의 목적은 6·25전쟁 초기 북한군의 작전술과 전투수행을 이해하는 것이다. 이는 북한군 전투수행의 원형을 이해하는 단초가 될 것이다.

이에 2장에서는 북한군 작전술과 전쟁계획의 배경인 항구적 작전요소 5원칙과 투하첵스키의 공세 기동전 교리와 소련의 전쟁 교훈을 살펴보겠다. 이후 스탈린의 3단계 전쟁계획과 알렉산드르 바실리에프의 3단계 전쟁수행계획의 특징을 분석하겠다.

3장에서는 전쟁의 주요 국면의 변화에 따라 3단계로 나누어 분석하겠다. 전쟁 초기 결정적인 작전의 실패와 북한 지도부의 혼란, 7~8월 추격 작전간 작전술의 정비 및 한계, 9월 공세작전간 작전한계점과 전쟁수행전략에 대한 전환 판단의 어려움 등의 측면에서 국

도입의 과정과 의미」, 『사람』 65호, 수선사학회, 2018.

12) 김선호, 「6·25전쟁 초기 북한의 전쟁지휘체계 형성」, 『동북아역사논총』 89호, 동북아역사재단, 2025.

13) 최원정, 「6·25전쟁을 통해 살펴본 작전한계점 판단의 과학적 접근」, 『군사연구』 144집, 육군군사연구소, 2017 ; 석영준, 「작전한계점 고찰- 6·25전쟁 전례분석을 중심으로」, 『군사연구』 120집, 육군군사연구소, 2004.

면별 작전술과 전투수행의 특징을 살펴보겠다. 특히, 스탈린, 소련 군사고문단, 김일성을 비롯한 북한 지도부의 상호작용과 지휘체계를 중심으로 분석하겠다. 이후 4장에서 요약하여 마무리하고자 한다.

2. 소련의 작전술과 전쟁 교훈

작전술이란 “목표, 방법, 수단, 위험을 통합하여 전략 또는 전역 또는 작전을 구상하고 군사력을 조직, 운용하기 위해 지휘관과 참모들이 숙달된 능력, 지식, 경험, 창의력, 판단력 등을 활용하는 인지적 접근”이다.¹⁴⁾ 즉, 작전술은 전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쟁 수행계획에 의해 집대성되며, 이러한 계획은 전쟁경험을 통한 능력, 지식, 창의력, 판단력에 의해 수립되고 시행됨을 알 수 있다. 이에 2장에서는 전쟁계획과 그 배경이 되는 소련의 작전술과 전쟁 경험의 교훈을 살펴본다.

가. 스탈린의 항구적 작전요소와 스베친의 장기 소모전

독소전쟁 초기에 소련은 스탈린의 전쟁지도 미흡, 군부 숙청에 의한 부대훈련과 전력 유지 제한, 그리고 전략과 작전술의 부조화¹⁵⁾ 등으로 인하여 혹독한 패배의 경험을 겪었다. 하지만, 스탈린

14) 합동군사대학교 합동교리처, 『합동·연합작전 군사용어사전』, 합동참모본부, 2025, 245쪽.

15) 군사적으로는 정치전략과 작전교리의 계획, 준비 사이의 위험한 단절이 1941년 6월 22일 대재앙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 되었다. “전략적 방어를 중요하지 않다고 잘못 생각하면서 심오한 문제를 고려하지 못했다”는 주코프의 언급대로 단절의 원천은 붉은 군대가 갖은 ‘공격’ 지향의 군사교리였다. 제프리 로버츠, 김남섭 역, 『스탈린의 전쟁』, 열린책들, 2022, 144쪽.

은 1942년 2월 23일에 항구적 작전요소 5원칙에 대한 명령 55호를 하달하였고,¹⁶⁾ 이는 결국 전쟁 승리에 도움이 되었다. 5개 요소는 ① 후방의 안정, ② 군의 사기, ③ 사단의 질과 양, ④ 군의 장비, ⑤ 지휘관의 조직 능력이다.¹⁷⁾ 특히, 선전 활동의 효율성을 개선하는 것과 보급 및 예비대에 우선권을 부여하는 것, 그리고 물질적 토대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은 스탈린의 전쟁 리더십 중 가장 주목한 자질 중의 하나였다.¹⁸⁾

이와 같은 장기 소모전략의 이론적 토대는 스베친에 의해 정립되었다. 스베친은 미래전 양상이 섬멸전보다는 소모전의 특성을 지닐 것으로 예측하였다.¹⁹⁾ 그 이유는 첫째, 단기 섬멸전은 실패에 대한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섬멸적인 공격은 적 병력의 완전한 와해, 완전한 격멸, 지향된 부분들 간의 연결 절단, 중요 병참선 탈취 등에 의한 비상한 승리가 필요하다. 즉, 적 주력을 포위하거나 바다, 혹은 중립국의 국경지대까지 밀착시키는 비상한 승리가 없을 경우에는 실패하게 된다.²⁰⁾ 또한, 섬멸전에서는 어떠한 전략적 예비도 인정하지 않으며, 작전적 예비만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²¹⁾ 북한의 공격계획 1단계 결정적 작전에서도 전략적 예비의 결정적 역

16) 레이몬드 가토프(Garthoff, Raymond L), 배중호 역, 「자료: 소련이 보는 현대전의 결정적 제요소」, 『국방연구』 6호, 안보문제연구소, 1959, 126쪽.

17) 항구적 작전요소는 프룬제의 통합군사교리가 완화된 형태로 제2차 세계대전뿐만 아니라 1991년 소비에트연방이 해체될 때까지 존속되었다. 로저 리스, 류한수 역, 앞의 책, 2026, 293쪽.

18) 제프리 로버츠, 앞의 책, 2022, 282쪽.

19) 이는 캐슬 놀린이 『전투의 매혹』에서 역사적으로 결정적 전투는 거의 없으며, 대부분의 장기간의 소모전과 자원의 소비로 결정되었다는 주장과 맥을 같이 한다. B. A. 프리드먼, 진중근·김권우·조홍래·김준우 역, 『작전술의 본질-작전적 수준의 허상 그리고 작전술의 실제와 적용』, 일조각, 2025, 201쪽; 최영진, “〈현대 군사명저를 찾아서〉 전투승패, 결정적 전투보다 장기 소모전에 의해 결정,” 『국방일보』, 2025년 4월 10일 참조.

20) 스베친, 전갑기 역, 『스베친의 전략론 그리고 작전술』, 선인, 2018, 269쪽.

21) 위의 책, 280쪽.

할이 요구되지 않았기 때문에²²⁾ 전시동원 선포, 지휘체계 정비 등의 과정보다는 기습 성과 달성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었다.

둘째, 섬멸전략에서 소모전략으로 전쟁수행전략의 전환이 어렵다. 섬멸전에서 소모전으로 전환을 하기 위해서는 정치와 전략의 조화가 요구되는데, 이는 단순히 정치적, 작전적 활동간 균형을 맞춘다고 해결되지 않는다. 또한, 계획에서 제외된 정치적 문제가 군사 행동간에 나타날 수 있다.²³⁾ 즉, 한반도 전쟁계획에서 제외된 정치적 변수였던 미군의 참전이 전쟁 수행간에 큰 영향을 주었다. 전쟁, 정치, 군사의 관계가 상호 유동적이며 살아있는 생명체와 같기 때문에, 이를 조화롭게 하는 것이 작전술의 역할이다. 이는 스탈린의 정치전략과 김일성의 전쟁지도, 소련 군사고문단의 작전조언에 대한 상호 조화가 중요함을 의미한다.

셋째, 작전한계점을 판단하고 적시적으로 결심해야 한다. 공격작전은 작전한계점에 도달하기까지 지속되어서는 안 된다. 설정된 작전목표가 중요하다면, 전술적으로 불리한 상황에서도 작전을 계속해야 하지만 집요함과 완고함은 절대적 미덕이 아니며, 작전적 유연성이 필요하다.²⁴⁾ 또한, 승리를 보장할 수 없는 상황에서 물러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 물러날 용기와 과도한 조심성은 북한군의 9월 공세와 미군 참전에 따른 북한 지도부의 혼란 등의 상황에서 핵심적인 사안이었다.

넷째, 후방의 중요성으로 인해 단기 섬멸전 수행이 어렵다. 스베친은 “지금은 전쟁에서 승리가 고도로 훈련된 후방이 있어야 가능하다”며 후방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²⁵⁾ 이에 전쟁에 대한 군사계

22) 류제승, 앞의 책, 2013, 159쪽.

23) 스베친, 앞의 책, 2018, 141쪽.

24) 위의 책, 344쪽.

25) ‘후방’이란 병참 및 보급, 동원을 포함한 전쟁지속지원을 이야기한다. 스베친, 위의 책, 2018, 75쪽.

획 수립시 경제 동원, 군수 산업의 생산량, 수송수단과 동원준비 등이 중요하다.²⁶⁾ 6·25전쟁에서도 동원, 병참 등의 전쟁지속지원이 중요하였다.

요컨대, 섬멸전 수행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위험이 있다. 먼저, 결정적 작전에 모든 노력의 통합이 이루어져야 하며, 섬멸전 실패 시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섬멸전을 수행하다가 소모전으로 전환할 수 있지만, 작전한계점에 대한 판단과 결심이 어려우며, 특히 동원, 병참, 보급의 측면에서 적시적인 전환이 제한된다. 이를 인식한 스탈린은 항구적 작전요소에 대한 강조를 통해 독소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 이로 인해 1950년 이전까지는 북한의 전쟁 승인 요청에 반대하였다.²⁷⁾

나. 투하첵스키의 공세 섬멸전과 전쟁경험

스베친이 소모전의 대표자라면, 투하첵스키는 공세 섬멸전 이론의 대표자다.²⁸⁾ 1936년 중심작전은 트리안다필로프가 방안을 생각하고, 투하첵스키가 발전시켰다. 섬멸전에서 시간과 공간의 획득은 수단이며, 적 부대 집단의 격멸이 목표이다.²⁹⁾ 섬멸전은 목표, 시간, 공간, 그리고 행동의 단일성이라는 특성이 있다. 소련 군사사상의 근간인 『야전규정』에 의하면, 붉은 군대의 전투행동은 섬멸

26) 위의 책, 83쪽. 이에 비축창고와 동원예비군의 준비와 설비를 하는데 있어서 군 사비를 할당해야 함을 강조하였는데, 제정러시아 시대에는 군사비의 37%가 할당되었다고 한다.

27) 로저 리스에 의하면, 러시아는 서부에는 방어적 자세를, 발칸반도에서는 공세적 전략을, 중앙아시아와 극동에서는 팽창주의 정책을 채택했으며, 러시아의 여론과 국민정서는 침략전쟁을 지지하지 않았다. 이에 스탈린도 침략전쟁을 승인하지 않으면서도 극동에서 팽창주의 정책을 조건부(중국의 참전)로 채택하였다고 볼 수 있다. 로저 리스, 류한수 역, 앞의 책, 2026, 393~399쪽.

28) 스베친, 앞의 책, 2018, 25쪽.

29) 위의 책, 268~269쪽.

전 수행을 원칙으로 하였다.³⁰⁾

소련은 스탈린그라드 전투 이후 전력 구조를 다듬고 전술 개념을 현대화해 나갔다. 1941~42년의 전쟁을 통해 포병과 병력을 집중하여 운영하였고, 대전차방어, 독립된 제병협동의 기계화 부대 등의 교리가 부활하였다. 이후 1944년 소련군 『야전규정』에는 지상군의 공격을 위한 포병과 항공력의 지원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었다.³¹⁾ 즉, 이 규정은 소련군 교리의 특징인 기동, 기습, 선제공격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으며, 항공력은 제한된 임무와 역할을 수행하였다.

소련은 교범과 교리에 의한 사고가 경직되어 있기보다는 작전 상황에 적합한 융통성을 강조하였다.³²⁾ 작전수행에 있어 모든 것을 교범의 조문으로 빈틈없이 규정하는 경향의 소련에서도 교범에 제2선, 제3선 부대 지휘관에게는 공격지점 선정 등 ‘결심의 자유’를 인정하고 필요시 전과를 확대하도록 하였다.³³⁾ 결전방면에서의 병력집중과 다른 방면에서의 병력절약이 교묘하게 시행된 바그라티온 작전은 소련 작전술의 새로운 경지를 보여 주었다.³⁴⁾

특히, 만주 전역에서 소련의 군사기동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수행된 소련 작전술의 최고 수준이었다.³⁵⁾ 만주 전역의 목적은 만주의 확보 및 관동군 대다수의 격멸에 있었다.³⁶⁾ 소련은 주도권을 선

30) 타무라 나오야, 장형익 역, 『제2차 세계대전 직전 각 국가들의 육군교범을 읽다-독일, 프랑스, 소련, 일본 전술교범 비교』, 황금알, 2021, 44, 47쪽.

31) 데이비드 M. 글랜즈·조너선 M. 하우스, 권도승·남창우·윤시원 역, 『독소전쟁사, 1941~1945』, 열린책들, 2007, 237쪽. 번역서에서는 소련군 『야전교범 Ustav』으로 되어 있으나, 북한에서 이를 『야전규정』으로 번역, 발간하였다.

32) 장교단에게는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필요한 결정을 내리는 것이 장려되었다. 위의 책, 238쪽. 러시아 장교단의 변화와 발전, 사회적인 인식에 대해서는 로저 리스, 류한수 역, 앞의 책, 2013, 284~285, 332~336쪽.

33) 타무라 나오야, 앞의 책, 2021, 293쪽.

34) 위의 책, 258~259, 461쪽. 타무라 나오야는 이러한 측면에서 독일, 프랑스에 비해 소련이 가장 선진적이었다고 평가하였다.

35) 제프리 로버츠, 앞의 책, 2022, 488쪽.

36) 데이비드 글랜즈, 유승현 역, 『8월의 폭풍』, 길찾기, 2018, 78쪽.

점하고 일본의 항복 이전에 만주 통제를 확고히 하기 위해 단기 섬멸전을 계획하였다. 만주 전역의 전략적 공세는 기습, 과감한 기동, 중심돌파, 신속한 진격속도, 지형 극복 능력, 방자의 지휘통제망 파괴와 혼란 조성 등으로 소련군 제병협동의 진수를 보여주었다.³⁷⁾ 이는 바실리에프의 전쟁계획에서 다정면에 의한 다중 포위작전에서처럼 결정적 작전으로 주력을 섬멸하고, 중심기동전을 수행하는 개념과 유사하다.

요컨대, 『야전규정』으로 대표되는 소련군의 작전술과 군사교리는 제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끈 원동력이었다. 이는 보병중심의 제병협동전투, 기계화 부대에 의한 중심 기동전, 다정면 동시 압박 및 우회 포위 섬멸전 등을 특징으로 하며, 소련군 지휘관들의 지휘력이 뒷받침되어 달성될 수 있었다.

다. 스탈린의 전쟁계획과 바실리에프의 전쟁수행계획

1949년 3월 초 김일성과 박헌영의 무력통일안에 대해 스탈린은 “북조선인민군은 남조선에 대해 확실한 우위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고, 또 수적으로도 불리하며, 남조선에 아직 미군이 존재하고 있으므로 남침을 하면 당연히 미군이 개입할 것이고, 아직은 소련과 미국의 38선 분할에 관한 협정이 유효한 상황이기 때문에 먼저 위반하면 미군 개입을 막을 명분이 없다”며 반대하였다.³⁸⁾ 즉, 스탈린은 북한의 질적 및 양적 전투력 우세미흡과 미군의 개입 가능성으

37) 앞의 책, 6쪽. 글렌즈는 만주작전과 사막의 폭풍작전의 유사성에 대해 ①급속한 병력 구축, ②통합된 전투사령부 창설, ③기습달성, ④포위섬멸을 위한 포위기동, ⑤기갑부대가 공격선도, ⑥압도적인 화력 및 공중우세 지원, ⑦급속한 전과 확대, ⑧적 예비대 차단·교전으로 보았다. 또한 이는 만주 전역시 소련 작전술의 특징이기도 하다.

38) 양영조, 「소련의 대북한 군사정책(1948-50)」, 『군사』 39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1999, 145쪽; “모스크바의 새증언(1)” 『서울신문』 1995년 5월 15일자.

로 반대하였다.

주한미군이 철수한 직후, 1949년 8월 김일성은 다시 남침 의도를 밝혔고, 이에 소련은 “남침에 필요 불가결한 우월한 군사력을 보유하지 못했고”, “남한에서의 전 인민 봉기 확산 전개와 향후 북한 인민군 강화에 집중”할 것을 지시하였다.³⁹⁾ 일본군 지원 가능성과 장기 소모전 우려, 군사력 부족과 작전술 지휘조직 미흡, 인민 봉기 제한 등의 이유로 반대하였다.

1950년 1월 17일에 김일성은 전쟁 개시를 표명하였고, 슈티코프는 이를 모스크바에 전달하였다. “(김일성은) 먼저 공격을 시작할 수 없으며, 스탈린 동지의 명령은 나에게 법”이라고 하면서 “조선 남북의 정세 문제에 대해 스탈린 동지의 조언을 받고 싶다”고 하였다.⁴⁰⁾ 스탈린은 1월 30일에 회신문을 통해 “그를 지원할 뜻이 있음”을 밝혔다.⁴¹⁾ 긍정적 회신과 함께 2월 20일경에는 바실리예프 중장을 북한군 수석 군사고문에 취임하는 실질적인 조치가 이루어졌다.⁴²⁾

1950년 4월 10일, 스탈린은 김일성과 회담에서 국제환경의 유리한 변화로 선제 남침 공격에 동의하였다. 당시 국제정세의 변화란 중화인민공화국의 수립, 소련의 핵 개발 성공, 류사오치의 무장투쟁 용인론, 미일 평화조약, 마셜 플랜 중단 및 나토창설 저지 시도의 좌절 등으로 볼 수 있다.⁴³⁾ 특히, 1949년 12월 16일 마오쩌둥

39) 양영조, 앞의 논문, 1999, 149쪽. 박종효 편저, 『러시아 연방 외무성 대한정책자료』 제1권, 선인, 2010, 330쪽.

40) 박종효 편저, 앞의 책, 2010, 391~393쪽. ; 와다 하루키, 남상구 · 조윤수 역, 『와다 하루키의 한국전쟁 전사』 청아출판사, 2023, 141~144쪽.

41) 와다 하루키, 앞의 책, 2023, 146쪽. 북한은 남 2만 5천 톤을 소련에 제공하였다.

42) 위의 책, 149쪽. 임무수행은 2월 23일부터 진행되었다.

43) 시모토마이 노부어, 이종국 역, 『모스크바와 김일성』 논형, 2012, 103쪽 ; 사무엘 F. 웰스, 박행웅 역, 『한국전쟁과 냉전의 시대』, 한울아카데미, 2020, 5쪽. 미일동맹체제의 전략적 가치를 상쇄할 의도였다는 분석에 대해서는 양영조, 앞의 논문, 1999, 159쪽.

의 모스크바 방문 이후 1950년 2월 17일까지 진행된 중소우호동맹 조약과 중국의 한반도에 대한 적극적인 행동 가능성이 가장 중요한 요소였다. 미국의 개입 가능성에 중국을 끌어들이고자 하였기 때문이다. 이에 스탈린은 “(전쟁의) 최종결정은 북한과 중국에 의해 공동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였다.

이 회담에서 북한은 전쟁 승리에 대한 확신을 전달하고자 이른바 ‘20만명의 남로당원’ 봉기설을 주장하였다. 하지만, 스탈린과 김일성은 인민봉기의 어려움을 알고 있었고,⁴⁴⁾ 당시에는 빨치산(비정규전)에 대한 교리도 정립되지 않았었다. 이에 스탈린은 북한군 전력의 양적, 질적인 증강 문제와 상세한 공격계획 수립을 강조하였다.⁴⁵⁾ 또한, 그는 ① 38도선 부근 병력 집결, ② 평화통일 제의, ③ 기습공격으로 웅진반도 점령 이후 한반도 전 영역 공격이라는 3단계 전쟁계획을 제시하였다.⁴⁶⁾ 3단계 전쟁계획에서처럼 스탈린은 전략적으로 전쟁의 명분과 절차를 중요시하였으며, 군사적으로는 ‘엘리트 공격사단’, ‘기계화’ 부대, ‘상세한 공격계획’ 수립과 ‘기습’, ‘신속성’을 강조하였다.

요컨대, 스탈린은 기습에 의한 군사적 성공보다 정의의 전쟁이라는 명분을 중시하였는데, 이는 기습 달성을 항구적 작전요소가 아닌 잠정 영향요인으로 평가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소련이 직접 참전할 것임을 믿어서는 안 되며, 한반도 문제에 직접 뛰어들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며⁴⁷⁾ 제한전쟁을 수행할 것임을 강조하였다. 하

44) 1949년 9월 15일 톨킨이 모스크바에 보낸 전문에 의하면, 김일성은 빨치산 능력에 대해 부정적 평가를 내리고 있었으나, 박헌영은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고 평가했다. 김광수, 박사학위논문, 2008, 93~94쪽.

45) A. V. 토르쿠노프, 구종서 역, 『한국전쟁의 진실과 수수께끼』, 에디터, 2003, 112~113쪽.

46) 와다 하루키, 앞의 책, 2023, 156쪽.

47) 양영조, 앞의 논문, 1999, 156쪽 ; 박찬만, 「주북한 소비에트연방군사고문단의 역할과 기능(1948~1953)」, 경기대 박사학위논문, 2012, 158쪽 ; 제프리 로버츠, 김남섭 역, 『스탈린의 전쟁』, 열린책들, 2022, 607쪽.

지만, 미국이 개입한다면 중국 참전 하 장기 소모전을 수행한다는 개념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침이나 논의가 없었다. 이에 미국 개입의 가능성과 대응방향에 대한 김일성과 스탈린의 인식은 달랐다.

〈표 1〉 스탈린의 3단계 전쟁계획과 바실리에프의 전쟁수행계획

구 분	스탈린의 전쟁계획	바실리에프의 전쟁수행계획
1단계	38도선 병력 집결	국군 주력 섬멸 (3일 내 서울 점령)
2단계	평화 제의	전과 확대 및 예비대 섬멸 (군산-대구-포항)
3단계	웅진반도 점령 이후 전 한반도 공격	소탕 및 남해안 점령 (부산-여수-목포)
특 징	정치전략(전쟁의 명분 중시)	작전술(섬멸전, 기동전)

출처 : 전쟁수행계획은 국방군사연구소, 『한국전쟁(상)』, 1995, 78쪽. 참조하여 작성

작전술 측면에서는 바실리에프 주도로 전쟁수행계획이 수립되었다.⁴⁸⁾ 가용시간을 고려하여, 6월 1일까지 부대편성을 완료하고, 6월 8일부터 10일까지 병력을 배치하며, 15일에 세부 작전계획을 준비하도록 하였다. 6월 16일에 슈티코프는 모스크바에 3단계 계획서를 전달하였다. “적의 주력군은 서울 주변에서 포위되어 괴멸”되며, “작전의 최종단계는 적국의 남은 병력을 격파하고 도시와 항만을 점령하여 해방”하는 것이었다.⁴⁹⁾ 6월 20일에는 3단계 전쟁수행계획에 호응하는 정찰계획을 작성하였다.⁵⁰⁾ 정찰계획에 의하면, 1단계는 적의 주력집단 분쇄, 2단계는 적의 예비전력 분쇄, 3단계는 적의 잔당 말소 및 남해안 전진으로 되어 있다.

48) 사단급의 모든 작전계획은 소련 군사고문들에 의해 작성되었다고 슈티코프가 자 하로프에게 보고하였던 것처럼 소련 군사고문들이 작전계획 작성을 주도하였다. 김광수, 박사학위논문, 2008, 119쪽.

49) 와다 하루키, 앞의 책, 2023, 167쪽.

50) 위의 책, 168쪽.

작전술 측면에서 기동계획의 내용을 살펴보면, 1단계는 한국군 주력을 섬멸하고, 3일 이내 서울을 점령하며, 서울(수원)-원주-삼척까지 진출하는 것이다. 2단계는 전과확대로 한국군 예비대를 섬멸하고 군산-대구-포항까지 진출하는 것이며, 3단계는 잔적 소탕 및 남해안으로 진출 단계로 부산-여수-목포까지 공격하는 것이다. 가장 결정적인 1단계 계획은 다정면 동시 압박 및 우회기동 섬멸전 개념이 반영되었다. 특히, ‘한국군 전방사단 주력 격멸’이라는 작전 목표 달성을 위해 포위 섬멸전을 구사하였다. 한국군이 철수하여 집결 가능한 서울을 중심으로 퇴로 및 증원차단이 가능한 한강대교와 주요 병참로인 ‘수원’에서 2중 포위하는 작전 개념이었다. 즉, 1차 양익포위는 의정부 방향에 주 타격 부대가, 서해안 방향에 보조타격 부대가 각각 공격하고, 전차여단이 한강대교를 점령하여 포위 섬멸하는 것이다. 2차 양익포위는 춘천, 홍천 방향에 2개 주 타격 부대가 공격하고, 603모터싸이클 부대가 후속하여 수원을 차단하여 수원 북방에서 한국군 주력을 포위 섬멸하는 것이었다.

작전계획에서 기동계획도 중요하지만, 지속지원계획도 중요하다. 당시 북한 정권수립과 군사력 건설, 그리고 전쟁 준비를 주도한 소련 장성은 제2차 세계대전 간 만주 전역 경험이 있었던 인원들이었다. 예를 들어, 만주 전역의 25군사령관 치스차코프가 평양의 소련 군정사령관이 되었고, 극동군사령부 정치위원 슈킨이 북한에 친소정권을 수립하였다. 제1극동전선군 정치위원 슈티코프가 북한의 군사고문단장이며 소련의 대사직을 수행하였다. 만주 전역에서도 소련군이 직면한 가장 큰 문제는 군수였다.⁵¹⁾ 유류 재고 부족을 포함하여 군수는 소련군이 감수해야 할 위협요소였고, 강을 경유하는 보급 과정에서 더 많은 문제가 발생하였다. 문제는 내재되어 있었지만, 만주 전역에서 승리하였던 것처럼 작전지형의 특성과

51) 데이비드 글렌즈, 앞의 책, 2018, 162쪽.

보급의 문제는 가장 심각한 취약점이었지만 전쟁계획 수립간 이를 간과하였다.

요컨대, 스탈린은 상세한 공격계획 수립을 강조하였고, 이를 위해 2월 20일경 파견된 바실리에프 주도로 3단계 공격계획이 수립되었다. 당시 만주 전역에 참여하였던 소련 장성들이 북한 정권수립과 전쟁준비를 주도하였기에 만주에서처럼 중심기동전을 구상하였다. 이에 가장 심각한 취약점인 보급 능력과 지형 극복은 단기섬멸전에 의해 해결 가능하리라 보았다.

3. 전쟁 국면별 북한군의 작전술과 전투수행

〈표 2〉에서와 같이 북한은 6·25전쟁을 5차 작전으로 구분하였지만, 본 논문에서는 작전계획 단계를 기초로 전쟁 초기 결정적 전투의 중요성, 미국의 참전에 따른 작전술의 정비와 추격작전의 한계, 작전한계점 판단과 전쟁수행전략 전환 실패의 측면을 고려하여 3개 국면으로 분석하였다.

〈표 2〉 북한의 전쟁단계와 국면별 작전술 구분

북한의 전쟁단계	전쟁 국면별 작전술과 전쟁수행
1차 작전('50.6.25.~29.)	전쟁 초기 결전 실패와 지도부의 혼란 ('50.6.25.~6.31.)
2차 작전('50.6.30.~7.6.)	
3차 작전('50.7.7.~7.20.)	작전술의 정비과 한계 ('50.7.1.~8.20.)
4차 작전('50.7.21.~8.20.)	
5차 작전('50.8.21.~9.15.)	작전한계점 판단과 전쟁수행전략 전환 실패 ('50.8.21.~9.15.)

출처 : 북한의 전쟁단계는 사회과학원 역사연구소, 『조국해방전쟁사』 1권, 1972, 참조하여 재작성

가. 전쟁 초기 결전 실패와 지도부의 혼란

전쟁의 명분을 중시하였던 스탈린은 웅진반도 점령 이후 전(全) 지역으로 공격을 확장하도록 하였다. 하지만, 김일성은 6월 21일에 공격 방법을 변경하였다. 군사적 효율성과 기습의 효과 등을 고려하여 38선 전 지역에서 공격을 감행하였다.⁵²⁾ 명분 조성과 국민 결집을 위해 ‘모든 힘을 전쟁의 승리를 위하여’라는 방송 연설로 ‘미국의 침략정책과 이승만 정권을 소탕하는 정의의 전쟁’으로 규정하였다.⁵³⁾ 이는 1941년 7월 스탈린의 연설을 모방한 것이었다.⁵⁴⁾ 침공 의도를 숨기기 위해 6월 26일에 군사위원회를 조직하였다. 군사위원회는 정치, 경제, 군사 역량을 총동원하는 전시 비상기구의 역할을 하였는데, 이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소련의 국방위원회를 모방하였다.⁵⁵⁾ 이후 27일에는 ‘전시상태를 선포’하며 사전 준비된 제반 조치를 수행하였다.

북한 문헌에 의하면, 1차 작전 방침은 서울 점령과 국군 주력 섬멸을 위한 기동전이었다.⁵⁶⁾ 서울 점령 이후 김일성은 “과학적인 전략전술과 경이적인 속도로 불과 사흘 동안의 전투행정”으로 서울을 점령하였다고 연설하였다.⁵⁷⁾ 하지만, 6월 26일 평양의 슈티코프 대사가 모스크바에 보낸 전문에 따르면, 북한군은 강한 열정으로 정치적 분위기는 고양되었지만, 통신 두절, 조악한 전투지휘부의

52) 박종효 편저, 앞의 책, 2010, 402쪽; 사무엘 F. 웰스, 앞의 책, 2020, 138쪽.

53) 사회과학원 역사연구소,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령도하신 조선인민의 정의의 조국해방전쟁사』 1권, 사회과학출판사, 1972, 401쪽.

54) 시모토마이 노부어, 이종국 역, 『모스크바와 김일성』, 논형, 2012, 106쪽.

55) 박현옥, 「p. 」, 231쪽; 올레크 V. 홀레브뉴크, 유나영 역, 『스탈린, 독재자의 새로운 얼굴』, 삼인, 2017, 357쪽. 소련은 국방위원회 창설로 독재의 성격에서 전시 정치적 타협이 이루어졌다. 북한도 주요 결정은 김일성이 내리겠지만, 독단적 지휘보다는 타협에 의한 정책 결정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인다.

56) 사회과학원 역사연구소, 『조선전사』 제25권, 과학 백과사전출판사, 1981, 140쪽.

57) 사회과학원 역사연구소, 『조국해방전쟁사』 1권, 1972, 402쪽.

편성, 포병·전차 사용의 미숙한 점이 노출되었다.⁵⁸⁾

특히, 북한은 전쟁 초기 작전술에서 가장 중요한 결전을 위한 결정적 기회를 놓쳤다. 서울에서 한국군을 포위하고 격멸시켰다면, 향후 작전들이 좀 더 좋은 상황에서 전개되었을 것이다.⁵⁹⁾ 그 이유는 ① 2사단, 12사단, 603모터싸이클연대의 느린 속도와 지휘가 부족하였고 포병의 후속도 미흡하였다. ② 3사단, 4사단, 105땅크여단이 한강도하 시기를 상실하였다. ③ 참모부와 병참선에 대한 미 공군의 폭격으로 인하여 어려움이 있었다. ④ 통신대책, 정찰소홀 등 민족보위성의 지휘가 미숙하였다. 작전적 실패에 대한 책임으로 2군단장 김광협, 2사단장 이청송 소장이 해임되었다. 이렇듯 작전계획에 의한 기습과 기만은 달성하였고 정치적인 명분은 확보하였지만, 가장 결정적인 한국군 주력 섬멸에는 실패하였다.

특히, 6월 28일 11시 30분에 서울 점령이 공식 선포된 이후, 일부 부대에서는 29일 오후까지 휴식을 취하는 등 ‘작전적 정지’ 상황이 발생하였다. 이는 소련 군사고문단의 추격 조언을 묵살한 행동이었다. 이에 인민봉기에 의한 전쟁낙관론과 서울 점령시 전쟁이 끝날 것이라고 생각하는 북한 지도부(김두봉, 최용건 등)의 분위기 등을 고려하여 북한군이 서울 점령만을 목표로 삼아 제한전쟁을 수행하려고 하였다는 주장도 있었다.⁶⁰⁾ 하지만, 북한의 공격계획이 공개되면서 북한군의 계속적인 공격은 최초부터 계획된 것이었음이 확인되었다.⁶¹⁾ 김기옥은 북한군 2군단의 우회기동작전 실패와 민중봉기를 기다리기 위해 지체되었다고 보았다.⁶²⁾ 김광수는 도하

58) 와다 하루키, 앞의 책, 2023, 190쪽. 시모토마이 노부어, 앞의 책, 2012, 107쪽.

59) 육군군사연구소, 『소련이 기술한 6·25전쟁』 국군인쇄창, 2019, 53쪽.

60) 신복룡, 「한국전쟁의 기원: 김일성의 개전의지를 중심으로」 『한국분단사 연구』 한울아카데미, 2001, 640쪽.

61) 류제승, 앞의 책, 2013, 173쪽.

62) 김기옥, 「한국전쟁 초기 춘천·홍천전투가 전세에 미친 영향」, 『군사』 12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1986, 47쪽.

장비 부족과 김일성의 작전지도 미흡에 따른 산물이었음을 강조하였다.⁶³⁾ 김태현은 미국의 참전과 북한 지도부의 당혹감 때문이라고 추정하였다.⁶⁴⁾ ‘인민봉기설’에 의한 승리 낙관과 도취감에 의한 작전적 정지인지, 도하 장비 부족 등으로 한강 도하를 위한 작전 준비 기간인지, 혹은 미군의 참전에 따른 공포와 두려움 때문인지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이 요구된다.

김일성은 ‘단기전이라면 미국이 개입할 여지가 없을 것’이라고 판단하였고, 전쟁 발발 이후 최초 3~4일 정도는 미군의 개입 가능성이 낮다고 낙관하였다.⁶⁵⁾ 박헌영도 6월 29일 방송연설에서 “수도 해방은 실은 이번 전쟁의 승패를 사상적으로 결정”하였다며 낙관하였다.⁶⁶⁾ 당시 한국 정부는 매우 취약한 신생 정부였기 때문에 소규모 활동일지라도 전면적인 정규전 부대의 침공과 동시에 빨치산이 진행된다면 정치적 타격이 있으리라 판단했다.⁶⁷⁾ 이에 박헌영은 남한 내 빨치산 활동에 대해 무장봉기를 기대하였다. 하지만, 1950년 빨치산 부대들은 한국 군경의 성공적인 토벌작전으로 규모가 축소되었고, 북한 정권의 지도와 지원도 실패하였다.⁶⁸⁾ 또한, 군사교리적으로도 비정규전에 대한 체계적인 준비가 미흡하였다.⁶⁹⁾ 이에 김일성도 빨치산 활동은 정규전에 대한 군사적 배합 수단으로 고려하였다. 즉, 인민봉기에 대한 현실성이 없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북한 입장에서 전쟁의 실상은 낙관적이기보다는 비관적이었다. 미군 개입 가능성에 대한 북한 지도부의 우려는 전쟁 이전부터 존

63) 김광수, 박사학위논문, 2008, 172~175쪽.

64) 김태현, 「김일성의 6·25전쟁 전략 분석: 전략의 진술화」, 『군사』 105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7.

65) 김국헌, 앞의 논문, 1991, 195~196쪽.

66) 위의 논문, 193쪽.

67) 장성진, 박사학위논문, 2014, 192~196쪽.; 양영조, 「6·25전쟁 발발 전후 북한 게릴라의 활동과 성격」, 『군사연구』 136호, 육군군사연구소, 2013, 96쪽.

68) 류제승, 앞의 책, 2013, 176~178쪽.

69) 위의 책, 110쪽.

재하였다. 최용건은 1950년 4월 말에 전쟁 승인 이후 당 중앙위원회 정치위원회 확대회의에서 미국의 개입 가능성을 우려하였다.⁷⁰⁾ 6월 27일 정오에 미 대통령은 미 해·공군의 출동을 선언하였고, 공군의 폭격이 시작되었다. 6월 27일 밤에는 안보리 결의안(82호)이 채택되면서 유엔의 미측 군사행동이 공식적으로 승인되었다.⁷¹⁾ 6월 27일, 김일성은 강건에게 중앙청, 서대문형무소, 마포 형무소, 방송국 점령 등 서울의 정치적 목표물들을 점령하도록 지시하였다.⁷²⁾ 이는 미군의 참전에 이어 서울 시가전으로 전쟁이 장기화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와 ‘서울 해방’이라는 정치적 목표 달성을 위해 서울의 정치적 목표물을 신속하게 점령하도록 작전 우선순위를 조정하여 지시하였을 수 있다. 하지만, 이는 한강 교량을 점령하고 적극적인 추격 시행에 대한 군사고문단의 조언을 무시한 처사였다.

6월 29일 이후에는 평양비행장 등 북한 지역에 대한 공습이 이루어졌다. 미군의 평양에 대한 공습은 북한지도부에게 혼란과 공포감을 가중시켰다.⁷³⁾ 즉, 6월 29일부터 7월 1일까지 북한 지도부의 혼란은 전쟁의 가장 중요한 국면에서 공격 기세를 완화시키는 배경이 되었다. 김두봉, 홍명희 등의 일부 북한 지도자는 미국을 상대로 전쟁하기 어렵다며 반대 여론을 조성하였다.⁷⁴⁾ 또한, 미군에 대한 공식적인 조치와 판단이 없었으며, 전쟁을 계속할지, 어떻게 할지 혼란스러웠다.

북한 지도부가 혼란을 겪는 와중에 한강작전이 이루어졌다. 당시

70) 장성진, 박사학위논문, 2014, 116쪽.

71) 와다 하루키, 앞의 책, 2023, 206쪽. 소련은 6월 25일 안보리 긴급회의에 불참하였고, 안보리의 25일 결의에 대해 불법이라고 비난하였다.

72) 김광수, 박사학위논문, 2008, 165~166쪽; 사회과학원 역사연구소, 『조국해방전쟁사』 1권, 1972, 124~126쪽;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라주바예프 보고서』 2권,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1, 16쪽.

73) 이형재, 「6·25전쟁 초기 유엔공군 항공차단작전의 효과」, 『군사연구』 152호, 2021, 육군군사연구소, 223쪽.

74) 박종효 편저, 앞의 책, 2010, 403쪽; 시모토마이 노부어, 앞의 책, 2012, 108쪽.

작전 및 전략적으로 서울 점령보다 더 중요한 것은 수원, 원주, 삼척까지의 점령과 국군의 주력을 섬멸하는 것이었다. 또한 1단계 작전 이후 2단계 작전인 기계화 부대에 의한 기동전도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했다. 하지만, 북한은 작전적으로 중요한 한강교량 장악 목표를 도외시하였고, 도하장비의 부족, 미 공군의 작전, 국군의 방어, 전쟁준비와 계획에 대한 마찰,⁷⁵⁾ 전술적 조치 미흡 등으로 인해 한강작전은 실패하였다. 특히, 6사단은 도하장비의 보유에도 불구하고 정찰, 침투, 화력지원, 제병협동 등의 전술적 원칙을 실현하지 못해 도하작전이 3~4일간 지연되었다.⁷⁶⁾

전술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면, 초기 결전에서 북한군 3, 4사단은 신속하게 서울을 점령하면서 엘리트 사단의 전투력과 성과를 보여주었지만,⁷⁷⁾ 2사단은 사전 정찰미흡, 계속적인 정면 돌격, 국군 6사단의 선전 등에 의해 춘천전투에서 실패하였다.⁷⁸⁾ 12사단은 전술적 사고의 경직성과 비전술적인 전투지휘로 홍천전투에서 실패하였고, 이에 603연대의 국군 퇴로 및 병참선 차단 임무는 실패하

75) 김태현은 한강작전 실패 이유를 전쟁준비와 계획에 대한 마찰로 해석하였다. 즉, 인민봉기에 대한 환상, 한반도 지형을 미 고려한 도하장비 부족, 북한군의 비효율적인 지휘, 차후 작전 준비가 미흡하였다. 또한 28일 이후 군사적 정지에 대해서는 소련군 전술의 기계적인 적용과 같은 군사적 장애요인과 마찰이었다. 여기에 미군의 신속한 참전 결정은 북한지도부에 충격을 주었다. 김태현, 앞의 논문, 2017, 354~355쪽.

76) 정상혁, 앞의 논문, 2019, 354~355쪽. 라주바예프도 적절한 조직력의 부재, 도하장비 부족, 교육훈련 부족으로 분석하였으며, 장성진은 한강 교두보 확보 이후 신속한 전과 확대 미흡, 기갑, 기계화부대에 대한 조직력 미흡, 측방기동 및 퇴로 차단 미흡(정면공격만 되풀이)과 국군 김포사의 선전 등으로 분석하였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라주바예프의 6·25전쟁보고서』 제1권,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1, 148쪽 ; 장성진, 박사학위논문, 2014, 221~223쪽.

77) 3, 4사단은 동두천 전투시 돌파와 우회기동의 기동형식을 진행하였다. 하지만 서울 점령시에는 적을 추격하거나 한강 도선장을 점령하지 못하였다. 장성진, 박사학위논문, 2014, 229쪽.

78) 김광수, 박사학위논문, 2008, 158쪽.

였다.⁷⁹⁾ 이러한 일부 사단들의 전술적인 조치 미흡은 작전술과 전략적 실패에 영향을 주었다.

요컨대, 북한은 1단계 결정적 작전에 대해 상세한 공격계획을 수립하였고 초기 기습도 달성하였다. 특히, 김일성의 방송연설과 정치사상전으로 스탈린이 추구하였던 전쟁의 명분을 확보해 나갔다. 하지만, 북한군 2사단, 6사단, 12사단 등 작전적으로 중요한 부대에서 전술적으로 미흡하였고, 작전적 지휘관의 미숙으로 국군 주력 섬멸이라는 작전 목표를 달성할 수 없었다. 특히, 빨치산에 의한 인민봉기를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미국의 참전 소식과 평양 비행장의 공습은 북한 지도부에게 혼란과 공포를 조성하였다. 3일 이내 서울 점령이라는 정치적 목표는 달성되었지만, 한강작전 지연과 양익 포위 섬멸 실패 등 작전술적으로는 커다란 패착이었다. 특히, 한강작전은 공병장비 부족, 전술적 조치 미흡, 작전적 지휘 미숙, 전쟁지도부의 혼란 등의 복합적인 원인에 의해 실패했다고 볼 수 있다.

나. 작전술의 정비과 한계

북한지도부의 혼란은 스탈린의 명령과 소련 군사고문단의 지원으로 지휘체계가 정비되고 안정되어 나갔다. 7월 1일, 스탈린은 “북한측 지도부가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전혀 보고가 없다. 우리의 의견으로는 남으로의 진격은 계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남한을 보다 빨리 해방시킬수록 외세의 간섭기회가 적어질 것”임을 강조하였다.⁸⁰⁾ 아울러, 미 공군의 폭격에 대해 공개 항의토록 하고, 탄약 및 기타 군수품을 보내주기로 결정하였다. 이렇듯 미군의 참전 이후에도 가능한 신속하게 전쟁을 종결 짓는다는 소련의 기본

79) 장성진, 박사학위논문, 2014, 235쪽.

80) 박종호 편저, 앞의 책, 2010, 404~405쪽.; 와다 하루키, 앞의 책, 2023, 231~232쪽.

목표에 따라 북한군은 중심 기동전을 수행하였다.

북한은 군사고문단의 조언에 따라 미군 참전에 따른 일련의 비상 조치를 진행하였다. 먼저, 7월 1일에 전시동원을 선포하였다.⁸¹⁾ 북한은 전쟁 이전인 1949년 7월 15일에 조국보위후원회 결성준비위원회를 통해 동원체제를 형성하였다.⁸²⁾ 6월 27일 전시상태 선포시 적용대상은 전선 인근의 강원도와 황해도에 한정되었는데, 이는 총력전과 장기전을 예상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⁸³⁾ 이로 인해 전쟁 초기 전략적 예비 병력이 부족하였고, 작전의 융통성이 상실되었다.⁸⁴⁾

7월 5일에는 전선사령부 편성 등 군의 지휘체계가 개선되었다. 김일성은 7월 3일 중부전선에서의 부진한 작전과 최용건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면서 군의 지휘체계에 대한 조언을 구하였다. 이에 슈티코프와 바실리에프가 논의한 결과, ① 2개 군단 조직, ② 참모부를 전선사로 개조, ③ 민족보위성은 보급, 훈련, 해안방위의 임무 수행, ④ 최고사령관직에 김일성 취임, ⑤ 좌익 군단장에 무정, 우익 군단장에 김웅, 전선사령관에 김책, 참모장에 강건, 민족보위상은 최용건을 유임하는 것으로 검토하였고, 이후 7월 4일에 시행되었다.⁸⁵⁾ 전선사령부가 조직됨에 따라 전방 작전은 김책이, 후방 업무는 최용건이 담당하고, 김일성은 전반적인 전쟁지도를 하도록 하였다.⁸⁶⁾ 아울러, 7월 5일에 북한은 정치위원회제도도 시행하였다.

81) 김국헌, 앞의 논문, 1991, 190쪽.

82) 박영자, 「6·25전쟁기 북한의 ‘후방정책’」, 『군사』 57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5, 239~240쪽. 박찬만은 박사학위논문에서 북한은 1949년 초부터 전국적으로 총동원령을 발동하여 군 병력 충원제도를 ‘지원제’에서 ‘징병제’로 바꾸었다고 보았다. 박찬만, 박사학위논문, 2012, 128쪽.

83) 조선중앙통신사, 『조선중앙년감: 1951~52년판』, 조선중앙통신사, 1952, 442쪽 ; 조수룡, 「한국전쟁 시기 북한의 전시생산과 중·소의 지원」, 『군사』 88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3, 69쪽.

84) 박현옥, 「한국전쟁시 북한군의 전쟁지도」, 236쪽.

85) 박종효 편저, 앞의 책, 2010, 404~405쪽.

86) 김국헌, 앞의 논문, 1991, 202쪽 ; 육군군사연구소, 앞의 책, 2019, 59쪽. 1군단에

이는 감시와 견제의 역할보다는 군단장이 전선 작전 지도에 전념하기 위한 군사적 목적으로 운용되었다.⁸⁷⁾

7월 10일 이후 대부분의 군사작전은 소련 군사고문들의 조언에 의해 이루어졌다.⁸⁸⁾ 7월 8일에 김일성은 스탈린에게 북한군 간부들이 현대적으로 부대를 통솔할 능력을 갖추지 못하였기 때문에 스탈린에게 전선사령부와 2개의 군단 사령부에 25~35명의 소련 군사고문단을 파견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⁸⁹⁾ 또한, 미군 참전이 본격화되면서 군사고문단들이 일선 부대에 자취를 감추었는데, 이에 대한 역할 강화도 요구하였다.⁹⁰⁾ 이렇듯 북한군은 1단계 결정적 작전에 대한 실패 이후, 지휘체계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작전술은 거의 대부분 소련 군사고문들의 지도와 조언에 의존하였다.

2단계 작전인 중심 기동전에서도 오산, 대전 전투에서처럼 전술적 성과가 나타났다. 미 지상군과의 첫 교전인 7월 5일, 오산 죽미령 전투는 북한군 전술의 우수성을 보여주었다. 이는 화력의 집중, 능숙한 측·후방 침투, 양의 포위, 퇴로 차단 등 소련군의 전술을 적용한 사례였다.⁹¹⁾ 이에 맥아더도 “북한은 공세적이며 잘 훈련된 직업적 군대”임을 인정하였다. 7~8월 추격 작전시 각 전술제대들

는 2, 3, 4, 6사단과 105땅크여단, 603모터사이클연대를, 2군단에는 1, 5, 12, 15사단으로 편성하였다. 전선사와 군단사(번역본에는 집단군사)에는 각각의 권한과 독자성을 부여하였지만, 결심은 상급 사령관의 승인을 득하도록 하였다.

87) 김국현, 앞의 논문, 1991, 212쪽. 본격적인 정치위원제도는 10월 중순 이후 최고 사령관의 명령(10월 14일)에 의해 시행된다.

88) 김광수, 박사학위논문, 2008, 184쪽.

89) A. V. 토르쿠노프, 앞의 책, 2003, 152쪽.

90) 주영복, 니키타 흐루쇼프 회고록에도 전쟁 개시 7~10일에 전선에서 군사고문단이 철수했음을 언급하였다. 김국현, 앞의 논문, 204쪽. 당시 슈티코프는 스탈린의 허가 없이 고문들의 파견을 약속하였는데, 스탈린은 슈티코프를 질책하며 민간복을 입혀 『프라우다』지 특파원으로 위장하여 파견토록 하였다. 기광서, 「한국전 개입에 나타난 스탈린의 역할 실상」, 『군사』 63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7, 98~99쪽.

91) 장성진, 박사학위논문, 2014, 247쪽.

은 교리에 입각하여 훈련된 데로 전반적으로 잘 싸웠다.⁹²⁾ 대전전투는 전형적인 포위작전 개념이 나타난 사례였으며, 특히 4사단 18연대는 철수로인 세천 터널을 차단하여 작전 성공이 가능하도록 하였다.⁹³⁾

이렇듯 전술적인 숙련도를 과시하였지만, 작전적 수준에서는 제공권과 제해권 상실과 전쟁지속능력의 측면에서 한계가 있었으며, 스탈린의 전략적 판단도 그 어려움을 증대시켰다.

먼저, 제공권과 제해권의 상실이다. 북한군의 가장 치명적인 결함은 공군의 기술적 열세였다. 7월 중순경 북한군은 제공권이 상실되어 공격속도가 저하되었고 야간에만 작전이 이루어졌다.⁹⁴⁾ 7월 19일 김일성은 당시 어려움을 슈티코프에게 호소하기도 하였다.⁹⁵⁾ 미 공군의 항공 차단 작전은 교량, 철도, 도로망 타격으로 북한군 보급지원 및 수송이 어려웠고, 항공기 공포증이 확산되고 사기가 저하되었다.⁹⁶⁾ 병참선 차단으로 적시적인 병력 및 장비의 보충이 어려웠고, 생존성 보장으로 인해 포병의 적시적인 화력지원도 제한되었다.⁹⁷⁾

추격 작전의 핵심은 기갑 및 기계화 부대에 의한 기동성과 작전기세 유지에 있다. 성공적인 기동전 수행을 위해서는 제공권 제공이 선행되어야 하나, 북한은 충분한 화력지원과 항공지원이 부족한

92) 장성진, 박사학위논문, 2014, 184쪽.

93) 당시 미군의 화력(대전차무기 등) 열세, 정보 부실, 통신장비 부족, 참전 이전 훈련 미흡 등으로 패배하였다. 박일송, 「대전전투와 미군의 전투효율성」, 『군사연구』 130호, 육군군사연구소, 2010, 141쪽.

94) 러 국방부 편, 김종국 역, 『러시아가 본 한국전쟁』, 오비기획, 2002, 56쪽.

95) 이형재, 「6·25전쟁 초기 유엔공군 항공차단작전의 효과」, 『군사연구』 152호, 육군군사연구소, 2021, 227쪽.

96) 이형재, 앞의 논문, 2021, 226쪽. 북한군의 사기 저하 원인을 분석해본 결과, 식량 부족(21.4%), 공습(17.9%), 훈련부족(11.3%), 무기 및 장비 부족(9.8%), 전투의지 저하(4.9%) 임을 고려해볼 때, 공습의 병참선 차단 효과가 컸다. 이형재, 앞의 논문, 2021, 229쪽.

97) 육군군사연구소, 앞의 책, 2019, 72, 84쪽.

가운데 위장 등으로 생존성을 보장하거나 야간전, 산악전을 수행하였다. 산악지형에서의 전차 투입은 25군의 만주 전역에서도 이루어졌다. 당시 전차 통과 불가능 지역에 대해 소규모 정찰대 편성으로 적정을 확인하고 우회 및 돌파하여 길림을 점령한 바 있다.⁹⁸⁾ 하지만, 점촌 전투에서는 전차부대에 의한 단독 진격으로 대량피해가 발생하였다. 지형적인 어려움과 함께 군사교리 상 공군력이 기동전 수행을 위한 보조전력으로 설정하였다는 점에서 근원적인 한계가 있었다.⁹⁹⁾

둘째, 병력 동원, 병참 및 보급 등 전쟁지속지원을 위한 노력이 부족하였다. 전쟁 초기에는 필수 군수물자에 대한 지원이 거의 완벽하였지만,¹⁰⁰⁾ 병참 업무의 결점이 발생하였다.¹⁰¹⁾ 규칙적인 부대 보급과 부상자에 대한 후송 조치가 미흡하였고, 수송수단이 부족하였으며, 보급로가 공습당하고, 비현실적인 명령 등으로 병참 및 보급 지원이 어려웠다. 특히, 도하장비의 부족으로 공격기세 유지가 제한되었다. 도하장비 부재로 보병은 보트나 뗏목을, 전차와 자주포는 교량을 복구하거나 노획한 배 혹은 수중교량을 활용하였으며 이를 도하시키는데 며칠씩 소요되었다.¹⁰²⁾ 병력 동원의 미흡으로 교육받은 인원이 부족하였고, 장교급 예비 인원이 없었기 때문에

98) 소련 과학 아카데미 편, 『레닌그라드로부터 평양까지: 조선해방에 있어 소련 장성 11인의 회고록』 함성신서, 1989, 37~45쪽.

99) 김선호, 「한국전쟁 직전 북한공군의 실제전력 연구」, 『군사』 89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3, 192~193쪽.

100) 김광수, 「북한정권 성립 이후 ‘통일’ 전략 논의와 전쟁 준비」, 『군사』 79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1, 33~34쪽. 평양에 30일, 전방 창고 30일, 부대 5일 식량이 준비되었다.

101) 육군군사연구소, 앞의 책, 2019, 58쪽.

102) 위의 책, 83쪽 ; 김광수, 「북한정권 성립 이후 ‘통일’ 전략 논의와 전쟁 준비」, 94쪽. 북한군의 한강 도하작전과 낙동강 도하작전 사례 연구에 대해서는 정상혁, 앞의 논문, 2019 ; 장성진, 「낙동강 영산전투시 북한군의 도하작전 분석」 『군사』 78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1. 참조.

새로운 연대 편성과 장교 보충이 어려웠다.¹⁰³⁾ 병력 규모면에서 재편성이 제한되었고, 예비대의 부재와 제2제대의 소모로 인해 병력 집중이 어려워 공격이 둔화되었다.

북한군의 작전적 어려움은 스탈린에게도 책임이 있다. 전략적으로 스탈린은 미국과의 직접적인 충돌과 확전을 방지하기 위해 제한 전쟁을 수행하였다. 비록 그가 전쟁 기간 중 북한에 대한 무기 지원에는 적극적이었지만, 미국과의 직접적인 교전을 회피하기 위해 공군력 투입을 제한하였고, 소련 군사고문단의 활동을 제한 및 통제하였다. 특히, 대규모 공군전력, 방공장비, 도하장비, 그리고 기갑 및 기계화 부대의 투입 등에 대한 군사적인 필요성에도 불구하고,¹⁰⁴⁾ 적시적인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않았다. 정치·전략적 판단에 따른 스탈린의 이러한 조치는 북한군 작전술과 전투수행을 더욱 어렵게 하였다.

요컨대, 스탈린의 명령과 소련 군사고문단의 지원으로 전시동원선포, 지휘체계 개선, 정치위원제도 시행 등 일련의 비상조치가 시행되고 군사고문단의 추가 파견 요청과 역할 강화로 작전적인 정비가 이루어졌다. 이로 인해 오산, 대전 전투 등 성공적인 전술적 성과를 보였다. 하지만, 제공권과 제해권 상실로 추격작전의 작전기세를 상실하였고, 작전지속지원의 한계로 작전적 어려움이 증가되었다. 특히, 공군력, 공병장비, 방공장비 등의 투입을 제한하고 소련 군사고문단의 활동을 제한 및 통제하는 스탈린의 전략적 조치를 작전적으로 극복하기 어려웠다.

103) 육군군사연구소, 앞의 책, 2019, 47쪽.

104) 흐르쇼프는 북한에 1, 2개 전차군단만 지원했더라도 승리를 쟁취했을 것이라고 평가하였다. 류제승, 앞의 책, 2013, 187쪽.

다. 작전한계점 판단과 전쟁수행전략의 전환 실패

8월 20일경에는 북한군의 공세 실패가 명확해지고 있었다. 김일성의 비서 문일은 8월 18일 슈티코프에게 찾아가 김일성의 사기가 저하되었음을 언급하였다. 당시 김일성은 슈티코프에게 중국군의 지원과 공중 공군기 엄호의 지원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¹⁰⁵⁾ 이렇듯 병력의 부족과 공군력의 한계는 공격작전을 어렵게 하였고 김일성도 이를 인식하였다.

8월 25일 슈티코프는 전선의 몇 개 사단을 후퇴시켜 병력과 무기를 내실화 할 것을 김일성에게 조언하였다. 김일성은 ‘김책이 명령을 듣지 않아 사단의 후퇴가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고 답변하였다.¹⁰⁶⁾ 또한, 슈티코프는 “(김일성이) 전쟁의 장기화를 두려워하고 있다. 그래서 책임을 회피하려 하고”, “그(김일성)의 업무 방식에는 경험부족과 미숙함이 느껴진다.”고 평가하였다. 이렇듯 김일성은 책임을 회피하면서 전쟁 장기화를 두려워하고 있었다. 이에 스탈린은 8월 28일에 김일성에게 격려 서신을 통해 북한 전쟁지도부의 사기를 고양시켰으며 전폭기와 전투기의 추가지원 의사를 표명하였다.¹⁰⁷⁾ 이렇듯 지속적인 공격에 대한 회의적 견해는 8월 28일 스탈린의 서신과 함께 계속 공격이라는 방침으로 굳어졌다.

9월의 공격작전은 7~8월의 추격 작전과는 다른 형태의 작전이었다. 조직적인 공격준비와 세부공격계획을 수립하였다. 시간차 공격을 통해 다정면 동시 압박으로 대구, 영천, 삼랑진 일대에서 포

105) 장성진, 박사학위논문, 2014, 216~217쪽.

106) 와다 하루키, 앞의 책, 2023, 237쪽.

107) 위의 책, 252쪽; 박종효 편저, 앞의 책, 2010, 408~409쪽; 류제승, 앞의 책, 2013, 185쪽. 스탈린은 항공기를 분산시키지 말고 전선에 집중할 것을 조언하며 기습폭격기와 전투기를 추가 지원하였다.

위소멸하고 부산을 점령하고자 하였다. 9월 공세에서도 일부 전술적인 성과는 있었지만, 결정적인 장소에 병력의 집중이 제한되었고, 화력과 보급이 부족하였으며, 다수의 신병 편성으로 인해 전투 기술이 부족하였기 때문에 작전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였다.¹⁰⁸⁾ 특히, 북한은 제공권을 극복하기 위해 야간이동에 의한 생존성 보장, 고사화력의 보강, 중요수송로에 저격무기 배치, 전시생산운동 등 다양한 방법을 구사하였으나¹⁰⁹⁾ 공세를 유지할 수 없었다.

북한은 9월 초 공세 실패 이후에도 방어로 전환하거나 자의적인 후퇴를 판단하고 결심해야 했지만, 김일성은 계속 공격하였다.¹¹⁰⁾ 결국, 전쟁 초기 설정한 단기 섬멸전이라는 목표 달성에만 급급하였고, 장기 소모전으로 전쟁수행전략의 전환 시기를 제대로 평가 및 판단하지 못했다. 특히, 낙동강 방어선 주력부대를 서울 방어로 집결하라는 스탈린에 지시에도 김일성은 개인적 욕망과 희망적 사고에 집착하여 계속 공격하였다.¹¹¹⁾ 이는 맥아더의 인천상륙작전 성공과 함께 북한군을 파국의 위기로 몰아갔다.

요컨대, 8월 28일 스탈린의 서신에 대한 맹목적인 복종은 북한의 작전한계점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에 장애가 되었다. 서울 북방으로 집결하여 방어하라는 스탈린의 지시는 합리적이었으나, 김일성은 이를 따르지 않았다. 이렇듯 김일성은 스탈린의 지시와 명령을 최대한 수용하면서도 독자적인 판단을 하였으나, 그 판단은 최악의 결과를 가져왔다. 또한, 김일성과 스탈린의 전략적, 작전적 인식과 판단의 차이는 북한군 작전술과 전투수행에 가장 큰 장애요인이 되었다.

108) 김광수, 박사학위논문, 2008, 226~227쪽.

109) 사회과학원 역사연구소, 『조국해방전쟁사』 1권, 1972, 251~258쪽.

110) 육군군사연구소, 앞의 책, 2019, 78쪽.

111) 김광수, 박사학위논문, 2008, 236쪽.

4. 맺음말

지금까지 제시된 내용을 요약, 정리하여 글을 맺고자 한다.

소련의 작전술과 전쟁경험은 북한군의 작전술에 반영되었다. 스베친은 단기 섬멸전의 제한사항을 강조하였다. 북한군은 예비 전투력 없이 1단계 작전을 계획하여 위험을 감수해야 했으며, 정치적 변수인 미군의 참여에 대해 스탈린과 김일성의 인식이 차이가 존재하였다. 작전한계점을 적시에 판단하고 공격에서 방어로, 섬멸전에서 소모전으로 전쟁수행전략에 대한 전환을 시행해야 했으며, 병참, 보급 등의 전쟁지속지원 문제를 고려해야 했다.

투하첵스키의 공세 섬멸전 이론은 『야전규정』에 반영되어 군사교리로 통일되었으며 제2차 세계대전을 소련의 승리로 이끌었다. 다정면 동시 압박 및 우회 포위 섬멸전, 기계화 부대의 중심 기동전, 보병 중심의 제병협동전투 등을 특징으로 하며, 항공력은 지상군 지원의 임무를 수행한다는 교리적 한계가 있었다. 특히, 소련군 작전 지휘관의 지휘능력이 중요하였는데, 북한군의 작전적 지휘 미숙은 소련 군사고문단에 의존하였다.

스탈린은 북한의 군사력 부족, 작전술 지휘조직의 미흡, 항구적 작전요소 중 하나인 전쟁지속능력의 제한, 인민봉기의 어려움, 미군의 개입 가능성과 장기 소모전 우려 등으로 전쟁을 계속 반대하였다. 하지만, 한반도에 대한 중국의 군사적 개입 가능성 등 국제정세의 변화로 스탈린은 3단계 전쟁계획으로 전쟁을 승인하였다. ‘엘리트’ 사단에 의한 포위 섬멸전과 기계화 부대에 의한 중심 기동전으로 속전속결로 승리하겠다는 측면에서 북한과 소련은 유사하

게 인식하였다. 하지만, 스탈린은 기습보다는 명분을 중시하였고, 미군 개입시 중국 참전 하 장기 소모전을 구상하였으며, 소련은 직접 참전하지 않겠다는 제한전쟁의 측면에서 북한과 인식을 달리하였다.

바실리에프의 전쟁수행계획은 다정면 동시 압박 및 우회기동 섬멸전을 통해 수원 북방에서 한국군 주력을 섬멸하는 1단계가 가장 중요한 결전이었다. 2단계는 기계화 부대에 의한 중심 기동전, 3단계는 잔적 소탕 개념의 기동계획이었으며, 이를 위한 정찰계획도 작성되었다. 다만, 보급 및 병참, 병력 충원 등의 전쟁지속지원 문제와 한반도의 지형과 특성을 고려한 공병 장비 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그 중요성이 간과되었다.

전쟁 국면별 작전술과 전투수행을 살펴보면, 전쟁 1단계 초기 결전은 북한군의 작전적 미숙과 지도부의 혼란에 의한 실패였다. 이는 일부 사단의 전술적 미숙과 실책으로 그 효과가 증대되었다. 스탈린이 강조한 전쟁의 명분은 김일성의 방송연설과 정치사상전 등으로 달성되었다. 하지만, 국군 주력 섬멸의 실패 원인 중 하나였던 한강에서의 작전적 정지는 공병 장비 준비, 휴식 등 작전적 준비의 필요성이나 인민봉기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미군 참전에 의한 지도부의 혼란, 그리고 김일성의 작전적 미숙함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1단계에서 나타난 북한 지도부의 혼란은 스탈린의 명령과 소련 군사고문단에 의한 일련의 비상조치로 지휘체계를 정비하였다. 이에 오산, 대전 전투 등에서 전술적 성과가 있었지만, 제공권 및 제해권의 상실로 중심 기동전 수행이 어려웠고, 병참, 보급 등의 전쟁지속지원과 병력 보충의 한계로 공격 기세를 상실하였다. 특히, 스탈린의 공군력, 방공 및 공병 장비 투입 제한과 전쟁 초기 소련 군사고문단의 역할 축소는 북한군 전투수행의 어려움을 가중시켰다.

9월 공세 이전인 8월 20일경에는 북한군이 작전한계점에 도달하였다. 북한 지도부도 이를 인식하였으나, 8월 28일 스탈린이 하달한 사기 격려 서신은 ‘계속 공격’이라는 지침과 명분이 되었다. 이후 김일성은 철수 시기에 ‘서울 방어 집결’이라는 스탈린의 지시도 따르지 않아 북한군의 피해를 가중시켰다. 스베친의 언급처럼 작전한계점 판단과 전쟁수행전략에 대한 적시적인 전환은 어려웠다.

미국의 개입 가능성을 고려 중국을 끌어들이고, 소련의 참전을 제한하는 스탈린의 전략적 입장과 미군의 참전에 따른 국내 정치적 갈등과 혼란을 극복하며 제한된 병력과 무기체제로 싸워야 하는 김일성의 전략적 입장은 달랐다. 스탈린의 지시는 김일성에게 국내 정치적 혼란을 결집시키는 명분이었고, 김일성은 이를 활용하였다. 또한 스탈린의 인적, 물적 지원은 김일성에게 절대적이었으며, 소련 군사고문단에 의한 작전적인 조언은 북한군의 작전술과 전투수행을 이끌었음을 알 수 있었다.

본 논문에서는 스탈린의 전략적 지시, 김일성의 전쟁지도, 소련 군사고문단의 작전적 조언이 북한군 작전술과 전투수행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음을 살펴보았다. 특히, 전쟁 초기 미군의 평양 공습이 군사적 효과뿐만 아니라 전략적인 효과 측면에서 한강작전과 전쟁 1단계 결전에 작전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분석하였다. 하지만, 당시 북한 지도부의 혼란에 대한 직접적인 북한의 문헌은 제시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참고문헌〉

1. 사료

- A. V. 토르쿠노프, 구종서 역, 『한국전쟁의 진실과 수수께끼』, 에디터, 2003.
국방군사연구소, 『한국전쟁(상)』, 국방군사연구소, 1995.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라주바예프의 6·25전쟁보고서』, 군사편찬연구소, 2001.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 제1권 해방과 건군,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1967.
러 국방부 편, 김종국 역, 『러시아가 본 한국전쟁』, 오비기획, 2002.
박종효 편저, 『러시아 연방 외무성 대한정책자료』 제1권, 선인, 2010.
사회과학원 역사연구소, 『조선전사』 제25권, 과학 백과사전출판사, 1981.
_____,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령도하신 조선인민의 정의의 조국해방전쟁사』 1권, 사회과학출판사, 1972.
육군군사연구소, 『소련이 기술한 6·25전쟁』, 국군인쇄창, 2019.
예프게니 바자노프·나탈리아 바자노바, 김광린 역, 『소련의 자료로 본 한국전쟁의 전말』, 열림, 1998.

2. 단행본

- B. A. 프리드먼, 진중근·김권우·조홍래·김준우 역, 『작전술의 본질-작전적 수준의 허상 그리고 작전술의 실제와 적용』, 일조각, 2025.
데이비드 M. 글랜츠, 조너선 M. 하우스, 권도승·남창우·윤시원 역, 『독소전쟁사, 1941~1945』, 열린책들, 2007.
데이비드 글랜츠, 유승현 역, 『8월의 폭풍』, 길찾기, 2018.
류제승, 『6·25, 아직 끝나지 않은 전쟁(북한, 소련, 중국의 전쟁 기획과 수행)』, 책세상, 2013.
로저 리스, 류한수 역, 『러시아 군대의 역사: 나폴레옹 전쟁에서 우크라이나 침공까지』, 너머북스, 2026.
사무엘 F. 웰스, 박행웅 역, 『한국전쟁과 냉전의 시대』, 한울아카데미, 2020.
시모토마이 노부어, 이종국 역, 『모스크바와 김일성』, 논형, 2012.
스베친, 전갑기 역, 『스베친의 전략론 그리고 작전술』, 선인, 2018.

- 에드워드 루트왁, 이동욱 역, 『전략: 전쟁과 평화의 논리』, 경남대 출판부, 2010.
- 올레크 V. 흘레브뉴크, 유나영 역, 『스탈린, 독재자의 새로운 얼굴』, 삼인, 2017.
- 와다 하루키, 남상구·조운수 역, 『와다 하루키의 한국전쟁 전사』, 청아출판사, 2023.
- 장준익, 『북한인민군대사』, 서문당, 1991.
- 제프리 로버츠, 김남섭 역, 『스탈린의 전쟁』, 열린책들, 2022.
- 타무라 나오야, 장형익 역, 『제2차 세계대전 직전 각 국가들의 육군교범을 읽다-독일, 프랑스, 소련, 일본 전술교범 비교』, 황금알, 2021.

3. 논문

- 가토프, 레이몬드(Garthoff, Raymond L), 배종호 역, 「자료: 소련이 보는 현대전의 결정적 요소」, 『국방연구』 6호, 안보문제연구소, 1959.
- 강성학, 「북한 군사전략의 역사적 고찰」, 『전략연구』 11호, 한국전략문제연구소, 1997.
- 김국현, 「6·25전쟁 초기 북한의 전쟁지도에 관한 시론」, 『군사』 23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1991.
- 김광수, 「조선인민군의 창설과 발전, 1945~1990」, 경남대학교 북한대학원 편, 『북한군사문제의 재조명』, 한울아카데미, 2006.
- _____, 「한국전쟁 전반기 북한의 전쟁수행 연구: 전략, 작전지휘 및 동맹관계」, 경남대학교 북한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08.
- 김태현, 「김일성의 6·25전쟁 전략분석- 전략의 전술화」, 『군사』 105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7.
- 류한수, 「“8월의 폭풍”에서 “사막의 폭풍”으로: 냉전시기 미 육군의 소련군 작전술 이론의 연구와 수용과정」, 『군사』 105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7.
- 박영자, 「6·25전쟁기 북한의 ‘후방정책」, 『군사』 57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5.
- 박찬만, 「주북한 소비에트연방군사고문단의 역할과 기능(1948~1953)」, 경기대 박사학위논문, 2012.
- 박헌옥, 「한국전쟁시 북한군의 전쟁지도」, 『전사』 3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 2001.
- _____, 「6·25전쟁에서 김일성의 역할과 북한군의 전쟁수행」, 『군사』 63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7.
- 양영조, 「소련의 대북한 군사정책(1948-50)」, 『군사』 39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1999.
- 양진삼, 「전쟁기 중국지도부와 북한지도부 사이의 모순과 갈등」, 『6·25전쟁사의 새로운 연구』 제2권,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2.
- 이정곤, 「6·25전쟁 전 북한군 전쟁계획 분석(국가안보전략과 군사예술을 중심으로)」, 『군사연구』 145호, 육군군사연구소, 2018.
- 이종호·전갑기, 「제2차 세계대전 독·소 전쟁 초기의 독일과 소련의 군사전략 비교 연구」, 『군사』 103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7.
- 이형재, 「6·25전쟁 초기 유엔공군 항공차단작전의 효과」, 『군사연구』 152호, 육군군사연구소, 2021.
- 이희순, 「제2차 세계대전 독·소 전쟁 초기 소련의 실패원인 평가—전쟁이전 소련의 대비태세 중심으로」, 『군사연구』 135호, 육군군사연구소, 2013.
- 장성진, 「북한군 군사교리의 형성과 운용에 관한 연구, 1945~1950」, 북한대학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4.
- _____, 「한국전쟁 이전 소련군 교범을 활용한 북한군 전투훈련 과정 연구」, 『군사』 83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2.
- 정상혁, 「6·25전쟁 초기 북한군의 도하작전의 실패요인 연구—한강 도하 사례를 중심으로」, 『군사』 110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9.
- 최 영, 「북한의 군사전략」, 『북한군사론』 북한연구소, 1978.

〈Abstract〉

A Study on the NKPA's Operational Art and Combat Execution during the Initial Phase of the Korean War

Jang, Sung-ji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understand the operational art and combat execution of the North Korean People's Army (NKPA) during the initial phase of the Korean War. To achieve this, the study examines Stalin's war plan and Vasilyev's campaign plan, while analyzing the underlying Soviet theories of operational art, as well as the lessons learned from Soviet experiences in World War II.

Stalin initially opposed the war due to concerns over a protracted war of attrition in the event of U.S. intervention and issues regarding the permanent operating factors. However, considering the possibility of China's intervention on the Korean Peninsula, he approved a three-stage war plan. Stalin prioritized political justification over surprise, envisioned a protracted war of attrition involving Chinese forces, and explicitly limited direct Soviet military intervention. Vasilyev's campaign plan placed the highest priority on the first stage: neutralizing the main forces of the South Korean military north of Suwon through simultaneous multi-front pressure and flanking envelopment maneuvers. The second stage envisioned deep maneuver warfare led by mechanized units, followed by the mopping up of remnants in the third stage. However, the plan overlooked logistics and troop replenishment issues.

The NKPA's defeat in the decisive early battles of the first stage was the product of their operational immaturity and

the leadership's fear and confusion regarding potential defeat. This was further compounded by the tactical incompetence and errors of certain divisions. Notably, the operational halt in Seoul was not caused by the need for operational preparations (such as engineering equipment readiness or rest) or expectations of a popular uprising. Rather, it stemmed from the fear and confusion triggered by the rapid intervention of U.S. forces, combined with Kim Il-sung's operational immaturity.

Although the confusion within the North Korean leadership was temporarily stabilized by Stalin's orders and the operational art framework was reorganized with the support of Soviet advisors, The NKPA ultimately lost its operational momentum. The loss of air superiority hindered deep maneuver warfare, and severe limitations in wartime sustainability and troop replenishment hampered its capabilities. The primary obstacles were Stalin's restrictions on deploying Soviet airpower and the limited role permitted to Soviet military advisors.

By around August 20, prior to the September Offensive, the NKPA had reached its operational culminating point. However, prompted by a reassuring letter from Stalin on August 28, they continued their offensive, failing to accurately judge the critical turning point for strategic withdrawal or defense. Furthermore, their failure to comply with the order to assemble for the defense of Seoul ultimately exacerbated the catastrophic losses of the North Korean forces.

Key Words : The Korean War, Operational Art, Combat Execution, War of Annihilation, War of Attrition, Soviet Military Doctrine, Kim Il-sung
--

원고투고일 : 2026.06.26. 심사수정일 : 2026.08.25. 게재확정일 : 2026.09.09.
--